

# 징계 풀린 손흥민, 토트넘과 날아 오를까

프리시즌 이후 3주간 끝맛 휴식...오는 26일 기성용과 맞대결

현지 언론 "모우라·라멜라 활약에도 손흥민 복귀로 주전 경쟁"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칼을 갈고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돌아온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오는 26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기성용의 소속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EPL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날 손흥민의 시즌 첫 출장이 유력 시된다. 손흥민은 지난 2018-19시즌

37라운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도중 퇴장을 당해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시즌 38라운드와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까지 해당했다.

토트넘은 1라운드에서 승격팀 아스톤 빌라를 3-1로 완파하고, 우승 후보 '0순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2-2 무승부를 기록, 귀중한 승점 1점을 손에 쥐었다.

토트넘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손흥민이 없는 지난 1, 2라운드는 고역에 가까웠지만 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 치고 나가야 한다.

지난 시즌 말미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해리 케인과 아르헨티나 출신인 에릭 라멜라가 1, 2라운드 활약했지만 손흥민의 공백을 대신할 만한 선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암스테르담의 기적'의 주인공 공 무카스 모우라가 활약하며 2라운드까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올렸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이 절실할 때다.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복귀를 주목하고 나섰다.

영국 HITC는 "모우라가 맨시티전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의 선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손흥민의 복귀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은 뉴캐슬과

의 3라운드에 이어 아스널과의 '북런던더비'를 대비해야 한다. 라이벌이자 시즌 2연승을 기록하며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스널을 맞대항하기 위해선 최대한 다양한 공격 옵션이 필요하다. 때마침 지난 시즌 맹활약하며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떨친 손흥민이 가세하는 건 포체티노 감독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영국 '스피츠 웹'은 지난 19일 '토트넘의 레전드 그레이엄 로버츠는 주요 선수인 손흥민과 델레 알리 없이 맨시티전 무승부를 기록한 후배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역시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해리 케인을 제외하면 믿을 만한 골잡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이 없는 1, 2라운드 라멜라와 모우라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던 손흥민의 복귀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풋볼 런던' 역시 "에릭센, 라멜라가 매우 토트넘의 공격진은 기동력이 부족했다"며 "에릭센의 패스를 받을 뒷공간을 팔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다"며 손흥민의 공백을 짚기도 했다.

손흥민의 복귀가 기대되는 건 손흥민이 지난 2018-19시즌 전부터 엄청난 강행군 끝에 모처럼의 휴식을 얻었다는 점도 있다. 손흥민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시작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UAE 아시안컵,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UCL) 등 숭한 대회에 휴식 없이 나섰다.

급기야 영국 BBC는 프로축구선수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78경기에 출전했고 국가대표팀 일정 소화를 위해 총 11만 6000km를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뛰고 최장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즌 막판 징계 덕에 모처럼 끝맛같은 휴식을 취한 손흥민으로선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손흥민은 나이나 커리어로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젠 EPL에서도 최상급 플레이아라는 데 이견을 찾기 어렵다. 이미 많은 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손흥민은 새 시즌 또다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의 유럽 무대 최다골(121골)에 5골 뒤진 116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유럽 무대 최다골 뿐 아니라 자신의 시즌 커리어 하이(21골) 경신에도 도전한다.

뉴스1

##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결산

【편집자주】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광주에 모여수영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 여름 광주에서는 실력의 차이도, 나이와 성별, 언어와 국가, 장애로 인한 차이도 없었다. 단지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4회에 걸쳐 결산한다.

## 마스터즈 활성화...국제스포츠도시 발돋움

광주시, 수영 대중화 위해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추진



지난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선수촌에서 시민서포터즈 등이 마스터즈 참가를 위해 광주를 찾는 수영 동호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마스터즈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100여개 팀에서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경영경기 외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의 팀들도 출전하면서 비인기 종목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 156명이 출전한 수영동호회 'SWIMON'의 박정빈(서울) 회장은 "광주대회를 계기로 수영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마스터즈 대회가 외국에서 열려 나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주에서 세계대회가 개최돼 무척 반갑고 참가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강의 운동으로 수영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도린 티보즈 국제수영연맹 마스터즈위원장은 "수영은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전 연령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불속에서 무게를 느끼지 않고 부상의 염려가 전혀 없으며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라고 수영에 대한 열정을 밝혔다.

이어 "지구촌의 많은 수영 동호인들이 만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마스터즈대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며 수영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한국과 인근 국가들도 앞

으로 동호회 수영이 더욱 진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는 지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개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제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했다.

수송, 숙박, 식음료 분야는 물론 조직위원회 종사자,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역량이 커지는 등 두터운 인적자원 육성이란 효과를 거뒀다.

실제 이번 대회기간 1631명의 자원봉사자와 곳곳에서 활약한 운영요원들은 사전 치밀한 교육과 준비로 빈틈없는 대회를 치러내 각국 수영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에드 이블리 전 국제수영연맹 마스터즈위원장은 "남부대 수영장 등 각종 시설과 인프라는 물론, 대회 운영도 매우 훌륭했다"며 "수영의 볼모디나 다름없는 한국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 수영도시로 만들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 등을 위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트 수영과 마스터즈 수영 구분 없이 수영 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칭)광주수영진흥센터대회와 수영동호인들을 위한 (가칭)광주수영마스터즈대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뉴스1

## 여자프로배구 4개팀, 광주서 시범경기



9월6일부터 8일까지

대전지훈련 취소 대안

여자프로배구 4개팀이 시즌 전 광주에서 대결을 펼친다.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 현대건설과 KGC인삼공사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광주에서 시범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시범경기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 따라 예정된 일본전 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나온 대안이다.

연습경기 등 기존 일본에서의 훈련일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구

단거리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시즌 전 미니 시범경기라는 해답을 찾았다.

당초 흥국생명명과 GS칼텍스까지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등을 고려해 4개팀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개팀은 이번 시범경기 기간 동안 유소년 배구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프로배구 연구단원이 없는 광주 지역에 새로운 배구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뉴스1

## 월드컵 예선 앞둔 벤투호, 조지아와 최종 평가전

다음 달 10일 튀르키예니스탄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돌입하는 벤투호의 최종 평가전 상대로 조지아가 낙점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과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다음 달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현재 협의의 종료로 계약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레바논, 북한, 튀르키예니스탄, 스리랑카와 H조에 편성된 한국은 9월10일 튀르키예니스탄전을 시작으로 10월10일 스리랑카, 10월15일 북한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후 11월 14일 레바논과의 경기를 끝으로 2019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앞서 축구협회는 튀르키예니스탄과의 1차전에 4-5일 앞서 원정으로 치를 평가전을 준비했다. 당초 협회는 경기 일정이 없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가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일정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조지아를 최종 상대로 내정하고 협의 중이다.

유로2020 예선 D조에 속한 조지아는 오는 9월9일 덴마크와 홈 경기를 앞두고 평가전 상대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결 장소가 될 터키는 1차전 튀르키예니스탄으로 가기 위한 최상의 장소다. 직항이 없는 튀르키예니스탄에 가기 위해서는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등을 경유해야 한다. 그중 터키는 튀르키예니스탄과 기후가 비슷해 현지 적응에 적합하다.

**명품하는 행복의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